

# 중국 여성들의 예술관련 한국 박사유학 결정요인

- 문헌연구 -\*

고경순\*\*

I. 서론  
II. 연구방법  
III. 결과  
IV. 논의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한국 정부는 고등교육의 국제화를 국가 발전 전략의 하나로 설정하고 있으며, 외국인 유학생 유치 위한 다양한 제도적 노력을 지속해 왔다. 2015년 교육부가 추진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프로젝트 ‘스터디 코리아(Study Korea)’는 장학금 제공, 비자 발급 요건 완화, 한국어 교육 및 생활 지원 등을 통해 한국 유학의 매력도를 높였다. 이러한 정책은 한국으로의 유학 결정에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하였으며, 한류와 한국 유학 열풍까지 더하여 국내 대학에는 중국, 베트남, 몽골 등의 외국인 유학생이 급증하였다(고정운, 김유정, 2020; Tian, 2020).

관련 통계에 따르면, 국내 고등교육 기관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수는 2015년 83,842명에서 2023년 181,842명(박사과정생 18,141명)으로 8년 사이 약 10만 명이 증가하였다(법무부, 2024). 그중에서도 주목할 만한 부분은 2014년 대비 예·체능 계열의 석사 및 박사과정 유학생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석사과정의 경우 2014년 예·체능 계열 외국인 유학생 수가 911명(5.8%)이었던 것이 2020년 2,852명(11.4%)으로 늘어나 5.7% 증가율을 보였다. 예·체능 박사과정의 경우 2014년 248명(4.3%)에서 2020년에는 2,996명(22.8%)으로 18.4%p 증가하여 계열별 외국인 유학생 수 중 증가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교육개발원, 2025). 국적별로는 2023년 전체 유학생들 중 중국 유학생의 비중이 68,065명(37%)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한국교육개발원, 2023), 그중에서도 중국 여성 박사 유

\* 이 논문은 2024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신진연구자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4S1A5A8019928)

\*\* 전주대학교 예술심리치료학과 조교수, dmt.edu.korea@gmail.com

학생 수는 2009년 2,707명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3년 8,073명에 이르렀다(법무부, 2024). 특히 여성 유학생의 경우 예술 및 인문사회 분야에 중국 여성 박사과정생들이 집중되어 그 숫자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Yang, 2022).

이러한 결과는 중국 여성 유학생들이 전통적으로 부여된 여성으로서의 역할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가꾸어 나가고자 하는 내적 욕구가 반영된 것이라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최근 중국의 대학에서 예·체능 계열 교수들에게 고용 안정성과 승진을 위해 박사학위를 요구하는 추세가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다(Yang, 2022). 특히 중국에서는 2010년대 중반 이후 예술대학 전공자들에 대한 박사학위 제도가 강화되었으며, 예술교육 교원 및 창작 실기 전공자들에게 박사학위는 실질적인 경쟁력이 되고 있다(Yang, 2022). 이에 따라 학문성과 실기 능력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한국의 예술계 박사과정은, 진입장벽이 비교적 낮고 실기 기반 교육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중국 내 예술 전공 여성들에게 매력적인 유학 경로로 부상하였다(소이란, 2022; Mo & Ko, 2024). 이러한 현상은 중국 여성들의 한국 유학 선택이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제도적, 문화적 맥락과 긴밀히 연계된 지속적인 흐름임을 시사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국내외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외국인 유학생의 통계적 특성이나 개인의 유학 중 적응 경험에 초점이 집중되어 있다. 그 예로, 학업 스트레스나 문화적응 스트레스(고정운, 김유정, 2020; 김경숙, 2014; 김후조, 2011; 리첸첸 외, 2016; Tian, 2020)를 비롯해 학업 스트레스 및 대학생활 적응과 심리적 안녕감(김소창, 2010; 조용비, 이동혁, 2018; 책리하 외 2018; Yin & Ko, 2023), 중국 유학생의 유학 동기나 적응 문제(박은정, 2018) 등을 주제로 한 연구로 한정되어 있다. 즉, 한국에 유입되는 외국인 박사과정 유학생들의 급증에 대한 사회·문화적 맥락은 물론, 그중에서도 현저히 높은 숫적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예술 전공 중국 여성 박사과정생’들을 표본 집단으로 하여 이들의 유학 결정 과정의 의미와 동기를 사회구조의 상호작용 관점에서 다룬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정옥희, 2015; Mo & Ko, 2024).

특히 중국처럼 가부장적 문화가 여전히 뿌리 깊은 사회의 여성들이 박사 유학이라는 경로를 선택하는 행위는, 자국의 전통적 여성상에 대한 저항이자 새로운 삶의 경로를 모색하는 역동적인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는 ‘유학 결정’이라는 요인에 주목하여, 기존의 유학 경험 중심 연구와는 다른 다 차원적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여성의 고등교육 진출 확대와 국제 이동성이 활발해지는 현재, 이들의 유학 결정이 어떠한 사회·문화적 조건에서 이루어지는지를 조망하는 작업은 학문적으로도, 정책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여성의 국제 학술 이동성은 단순한 교육 기회의 확장이 아니라 젠더, 계층, 문화, 제도의 교차점에서 이루어지는 복합적 선택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복합적 선택 양상은 최근 중국 유학생들 연구주제에서도 드러난다. 예를 들어, 왕자목(2023)은 중국 현대무용 작품들이 시대별로 수행해 온 정치적 기능을 분석하며, 무용이 단지 예술 표현을 넘어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작동했음을 보여주었다. 위산산(2023)은 민국 시기 사교춤에 나타난 여성 해방의 서사를 통해 무용을 둘러싼 젠더 권력의 재구성 과정을 탐색하였고, 이문준과 김승일(2022)은 무용을 전공한 중국 대학생의 언어폭력 경험과 사회불안 간의 관계를 도피 이론의 관점에서 분석하며 심리적 요인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연구주제들은 유학생들에게 무용이

신체 기술이나 예술적 성과를 넘어, 사회구조와 개인 경험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수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 여성 박사과정 유학생들이 한국 유학을 선택하게 된 결정 요인을 구조적, 문화적, 개인적 측면에서 문헌 고찰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핵심 논점이 될 세 가지 요인 및 이를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이는 젠더화된 교육 경험, 계층적 문화자본, 그리고 동아시아적 문화 유사성이 유학 선택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설명하는 축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제도적 요인은 유학생의 선택이 실현되는 기회구조이자, 여성 유학생에게 실질적인 교육 및 생활 자원을 제공하는 결정적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주체적 요인은 개인이 자율성과 자기 효능감을 바탕으로 학문적·예술적 정체성을 재구성해 가는 내면의 동기를 설명할 수 있다.

## 2. 연구문제

첫째, 중국 예술 전공 여성 박사 유학생들이 한국 유학을 선택하게 된 사회문화적 요인은 무엇인가?

둘째, 중국 예술 전공 여성 박사 유학생들이 한국 유학을 선택하게 된 제도적 요인은 무엇인가?

셋째, 중국 예술 전공 여성 박사 유학생들이 한국 유학을 선택하게 된 주체적 요인은 무엇인가?

## II. 이론적 배경

본 연구에서는 중국 여성 예술 박사 유학생들의 한국 유학 결정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사회역할이론(Social Role Theory)(Eagly & Wood, 2012)과 자아확장이론(Self-Expansion Theory) (Aron & Aron, 1986)을 이론적 틀로 활용하고자 한다. 먼저, 사회역할이론(Eagly & Wood, 2012)은 개인의 행동이 생물학적 성 차이보다 사회적으로 부여된 역할에 의해 형성된다고 설명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여성은 사회적으로 ‘돌봄’이나 ‘보조적’ 역할에 더 적합하다는 고정관념에 의해 교육과 진로 선택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특히 가부장적 가치관이 강한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여성이 고등교육을 통해 경력 경로를 확장하려는 시도가 여전히 가족과 사회의 성 역할 기대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여성 유학생들이 외국 유학 결정을 내릴 때 직면하는 도전이 될 수 있다.

중국의 중산층 여성들은 부모 세대의 교육적 기대 속에서 높은 학력과 직업적 성공을 추구하지만, 동시에 ‘여성다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이중적 기대 요구도 경험하게 된다(Bao, 2022). 이러한 이중적 기대는 특히 예술 전공 여성들에게 모순적 양상으로 나타난다. 예술은 여성들에게 사회적으로 ‘허용된’ 전공으로 간주되면서도, 전문화된 경력을 위해서는 박사학위라는 고난도의 제도적 장벽을 넘어야 하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박사학위를 가진 여성을 “너무 강한 여성”으로 표현하는 것도 그 단적인 예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역할이론은 중국 여성 유학생들이 한국 유학을 선택하게 된 배경을 젠더화된 사회구조 속에서 이해하는 데 유용한 분석틀을 제공한다.

자아확장이론(Aron & Aron, 1986)은 인간이 새로운 경험과 환경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과 능력을 확장하고자 하는 동기를 강조한다. 즉, 사람들은 자신의 역량, 정체성, 사회적 연결망을 확장하기 위해 도

전적이거나 낮은 상황을 자발적으로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유학은 단순한 학위 취득의 수단이 아니라, 개인의 자율성과 국제적 감각, 새로운 정체성을 획득하려는 심리적 동기의 표현으로 연결하여 설명할 수 있다. Mo & Ko(2024)는 중국 여성 유학생들이 한국 유학을 통해 단순한 교육의 기회뿐 아니라 국제적 감각과 문화적 다양성을 지닌 전문가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고자 한다고 하였다. 이는 자아확장이론이 설명하는 개인의 성장 지향성과 높은 자기 효능감, 자율성 욕구와 부합한다. 특히 이들은 유학을 통해 전통적인 가족의 기대를 넘어 스스로 삶의 주체가 되고자 하는 강한 내적 동기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는 사회역할이론을 통해 유학생들이 처한 젠더 기반의 사회문화적 제약을, 자아확장이론을 통해 그들이 추구하는 개인적 성장과 정체성 전환의 동기를 설명하고자 한다. 이 두 가지 이론은 외부 구조(사회적 역할 이론)와 내부 주체(자아 확장이론)의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데 유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통해 중국 여성 유학생들의 한국 유학 결정이 사회적 제약과 개인의 동기 사이에서 어떻게 형성되는지 입체적으로 조명해 주는 이론적 틀을 제공하고자 한다.

### I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문헌고찰(literature review) 방법을 통해 예술 전공의 중국 여성 박사 유학생들의 한국 유학 결정 요인을 탐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 KCI 등재 국내 학술 데이터베이스인 KISS, DBpia에서 ‘중국’, ‘한국 유학’, ‘예술 전공’, ‘여성 박사과정’ 등의 키워드를 조합 사용하여 선행 연구 자료를 검색하였다. 그 결과 현재까지 예술 전공 중국 여성 박사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독립적인 연구는 매우 제한적으로 확인됨에 따라 일반적인 중국 여성 유학생 및 박사 유학생 관련 연구도 본 분석에 포함시켜 다층적인 해석을 시도하였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14편의 관련 연구물과 핵심 이론에 관한 문헌들을 기반으로, 유학 결정 요인을 사회문화적 요인, 제도적 요인, 주체적 요인의 세 범주로 나누어 분류 및 해석하였다. 이론적 분석틀은 사회역할이론(Social Role Theory; Eagly & Wood, 2012)과 자아확장이론(Self-Expansion Theory; Aron & Aron, 1986)을 기반으로 하였다. 사회역할이론은 젠더에 따라 기대되는 사회적 역할과 규범이 개인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며, 자아확장이론은 개인이 자기 정체성과 능력을 확장하기 위해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는 동기를 해석하는 데 적합하다. 이 두 이론을 통해 중국 여성 예술 전공 박사 유학생들이 한국 유학을 선택하는 과정을 구조적·문화적 맥락과 개인의 주체성 측면에서 통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는 <표 1>과 같이 문헌별 유학 결정 요인을 사회문화적 요인, 제도적 요인, 주체적 요인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표1〉 관련 연구 분석내용

#	저자	제목	사회문화적 요인	제도적 요인	주체적 요인
1	김시용, 이진우 (2012).	중국학생의 한국유학 결정요인에 관한 분석-중국 산둥, 광둥, 연변지역을 중심으로-. 중국학논총, 37, 325-345.	지역별 문화적 배경과 한국에 대한 인식 차이	한국 대학의 국제화 전략, 장학 제도	개인의 학업 목표, 진로 계획
2	정옥희 (2015)	A Preliminary Research on the Increase of Chinese Students in Dance Departments in South Korea, 대한무용학회 논문집, 73(3), 193-223.	무용스타일의 유사성 문화적 익숙함 고등학위의 수요 증가	다른 국가 대비 저렴한 유학비용	학위취득을 통한 교수진출
3	이주영, 양갑용 (2014).	중국 유학생의 한국 유학 선택 행위 연구: 근거이론에 기초하여. 중국학연구, 69, 355-387.	중국 내 여성 교육 진출 확대와 사회적 분위기 변화	장학금 제도, 박사 입학 경쟁의 상대적 완화	커리어 향상과 정체성 확장을 위한 전략적 선택
4	황경아, 홍지아 (2018).	재한 중국 유학생의 유학동기와 문화자본으로서의 취득학위의 가치 연구 문화와 예술연구, 20, 501-529.	문화자본의 중요성 인식	학위 취득을 통한 사회적 지위 향상	자기 인식, 정체성 협상 과정
5	강유린, 고장완 (2019).	중국인 유학생의 한국 유학 결정요인 분석. 교육문화연구, 25(5), 1075-1097.	한류와 언어-문화 유사성, 지리적 접근성	국가 장학제도, 입학절차의 유연성	학업 목표 명확성과 커리어 계획
6	Lan, S. (2021).	Finding a Chulu (Way Out): Rural-origin Chinese Students Studying Abroad in South Korea. Pacific Affairs, 94(4), 661-684.	농촌 출신 학생들의 사회적 이동성을 위한 한국 유학 선택	한국 대학의 접근성, 장학 제도	개인의 학업 목표와 진로 계획
7	이찬봉 (2021).	중국 음악전공 학생의 한국 유학 동기가 진로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세한대학교 일반대학교 교육학과 박사논문	중국 내 교육 경쟁 심화와 사회적 분위기 변화	한국 대학의 국제화 전략, 장학 제도, 유연한 입학 절차	개인의 학업 목표, 진로 계획, 자아 확장 욕구
8	Lee, S.W. (2017).	Circulating East to East: Understanding the Push-Pull Factors of Chinese Students Studying in Korea, Journal of Studies in International Education, 21(2), 170-190.	동아시아 내 교육 이동성 증가와 문화적 교류	한국 대학의 국제화 전략, 장학 제도	개인의 학업 목표와 진로 계획
9	소이란 (2022).	수도권 대학 예체능 계열 박사 과정 재한 중국인 유학생 교육 현황 및 개선 방안 연구. 문화와 예술연구, 20, 501-529.	예술 분야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한국 내 전공 맞춤형 실기 중심 교육과 제도 인프라	예술가로서의 자아확장 욕구
10	Luo, J. J. (2022).	재한 중국유학생의 유학동기와 문화적응에 대한 질적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류와 문화적 유사성은 초기 유학 동기	경제적 이점이 유학 동기 유발, 서구보다 저렴함.	자아 확장 동기 존재.
11	이지영 (2024).	아시아 유학생들의 한국 유학 결정 과정. 한국융합과학회지, 13(2), 155-170.	아시아권 교육 선호와 한국 유학의 문화적 수용성	장학금 제도, 입학 경쟁의 상대적 완화	커리어 향상과 정체성 확장을 위한 전략적 선택
12	장옥효 (2024)	중국 유학생의 한국 유학 결정 동기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석사논문	가족 및 또래의 유학 경험 공유 및 지지	중국 박사과정의 과도한 경쟁과 높은 입학 장벽, 한국의 장학금 제도와 유연한 학사 시스템	커리어 향상과 정체성 확장을 위한 전략적 선택
13	Chen, H., & Lee, J. (2024).	중국인 박사과정 유학생의 한국 유학 경험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교육과 문화, 6(2), 176-199.	가족 및 또래의 유학 경험 공유 및 지지	중국 박사과정의 과도한 경쟁과 높은 입학 장벽, 한국의 장학금 제도와 유연한 학사 시스템이 긍정적 요인.	커리어 향상과 정체성 확장을 위한 전략적 선택
14	Mo, Y. N., & Ko, K. S. (2024).	Motivation and Experiences of Studying Creative Arts Therapy among Chinese Doctoral Students in South Korea.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ents, 14(4), 1029-1048.	중국 사회 내 예술 치료 분야의 부상과 유학생 간 네트워크 확산이 동기 부여.	중국 내 예술치료 박사과정 부재, 한국 내 제도적 인프라와 전공 맞춤형 교육 제공.	전문성 강화와 학문적 성장 욕구. 예술가 및 치료사로서의 자아 확장 추구.

## IV. 연구결과

### 1. 사회문화적 요인

중국 여성 박사 유학생들의 유학 결정에 있어 사회문화적 환경은 중요한 영향력을 갖는다. 우선, 중국 사회 내 여성의 교육 기회 확대와 중산층의 부상은 여성의 국제 이동성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 되었으며(Bao, 2022), 이러한 변화는 중국 여성들이 전통적인 성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경력 중심의 삶을 설계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더욱이 한류의 확산과 동아시아 문화권 간의 유사성은 예술 분야 유학생들에게 심리적 거리감을 줄여주며, 한국을 친숙한 목적지로 인식하게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중국 사회에서 예술 분야는 여성에게 비교적 허용적인 전공으로 간주되지만, 이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박사학위 취득이라는 제도적 조건이 요구된다(황경아, 홍지아, 2018). 이때 중국 내 대학원 진학 및 박사학위 취득에 따른 높은 경쟁률과 장벽은 이들의 한국 유학 선택에 작용하는 주요 요인이 되는 것으로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다(이찬봉, 2021; 장옥효, 2024; 진향, 이지영, 2024). 즉, 해외 유학은 중국 여성 예술 전공자들에게 문화자본을 축적하고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전략적 선택으로 기능하는 것이다. 이는 사회역할이론(Eagly & Wood, 2012)에서 강조하는 성역할 고정관념과 사회적 기대의 틀 안에서 이해될 수 있다. 특히 여성 유학생들은 가족이나 사회가 기대하는 ‘여성다운’ 행동과 개인의 진로 선택 사이에서 갈등하며 유학을 선택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예술 전공자들에게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예술은 대개 여성의 감성과 정서적 표현 능력과 수반하거나 연관되는 경우가 많아 예술 분야의 박사 유학은 여성에게 보다 사회적으로 수월한 선택으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

Bao(2022)는 유학이 단지 교육만을 위한 경로가 아니라 성별, 계급, 국가 간 불균형이 교차하는 지점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유학을 통해 기존의 성역할을 벗어나 교육자로서의 새로운 정체성을 획득하려는 여성의 전략적 행위로 해석하였다. 특히 예술 분야에서 여성은 종종 감성적 예술가로 정형화되는데, 해외 박사과정을 통해 여성 예술가는 기술적, 이론적, 학문적으로도 탁월함을 증명할 기회를 얻게 되며, 이는 스스로 성역할 규범을 재구성하는 계기가 된다.

또한 몇몇 연구에서는 중국 여성의 한국유학이 문화적 동질성과 정체성 강화를 위한 선택임에 주목하며 이들의 유학을 단순한 도피가 아닌 자아 강화를 위한 문화적 선택 행위로 보았다(정옥희, 2015; 이지영, 2024; Lee, 2017; Luo, 2022). 실제로 한국은 중국과 유교적 문화 기반을 공유함으로써 유학생들에게 낯설지 않은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처럼 언어와 표현의 상징적 맥락이 유사한 문화권 내에서의 학업 및 창작 활동은 중국 예술 전공자들의 경우 자신의 예술적 정체성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유리한 기반이 될 수 있다. 이는 사회문화적 맥락이 중국 여성 유학생의 정체성 형성 과정에 깊이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사회역할이론과 긴밀하게 연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2. 제도적 요인

제도적 요인은 중국 여성 유학생들의 한국 유학 결정을 실현 가능하게 만드는 구조적 기반으로 작용한다. 특히 한국의 예술대학은 실기 기반의 박사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 내 대학에서 상대적

으로 찾아보기 어려운 교육 환경이다. 이에 대해 여러 학자들은 한국 대학이 제공하는 장학금 제도, 실습 중심의 커리큘럼, 박사 입학 절차의 유연성 등이 중국 유학생 유치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하고 있다(강유린, 고장완, 2019; Chen & Lee, 2024; Mo & Ko, 2024). 더욱이 예체능 전공자의 경우 해당 분야의 특성상 실기 역량을 심화할 창작 중심 학습이 필수적인데, 한국은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도적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 예술 전공 유학생들에게 매력적인 목적지로 인식된다(소이란, 2022). 특히 서구권에 비해 비교적 낮은 등록금과 생활비(정옥희, 2015) 수준은 중국 여성 유학생에게 현실적인 선택지로 부각되고 있다(Luo, 2022). 정옥희(2015)의 무용학과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질적연구에서 유학동기를 푸시-풀 요인으로 제시하였다. 푸시 요인으로는 중국 내 고등교육 기회의 부족과 현대무용 교육의 한계가 작용하며, 풀 요인으로는 한국의 상대적 근접성, 문화적 유사성, 저렴한 비용 등이 있었다. 하지만 한국 대학들은 중국 유학생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이나 전략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풀’ 요인의 약함을 강조하였다. 이는 무용학과들이 앞으로 유학생 유치와 교육 품질 향상을 위해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제도적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Mo & Ko(2024)는 중국 내 박사과정이 높은 경쟁률, 제한된 전공 선택, 경직된 입시 구조를 특징으로 한다는 점에서, 한국의 유연한 제도적 환경과 다양화된 전공 체계는 중국 유학생 유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았다. 이러한 제도적 조건은 자아확장이론(Aron & Aron, 1986)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으며, 새로운 환경에서 자기자원을 확장하고자 하는 개인의 동기를 촉진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예를 들어 중국 내에서 아직 제도화되지 않은 예술치료와 같은 융합 분야에서 학문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중국 여성들에게, 한국은 자율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확장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한국 유학 결정에서 장학금, 비자 제도, 예술 전공의 전문성과 같은 외적 조건들이 유학생의 선택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들은 여성 유학생이 제도적 지원을 통해 중국 사회가 전통적으로 규정해 온 여성 역할에서 벗어나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정체성을 형성해 간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러한 역할에는 사회역할이론과 자아확장이론이 상호보완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예술이라는 전공 분야의 특성상 실습, 창작, 발표 등이 수반되며, 이는 단순한 수업 이수와 달리 지속적인 제도적 지원이 필수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점에서 한국 대학은 다양한 플랫폼과 지원 체계를 통해 예술 전공 여성 유학생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동시에 확대하고 있다.

### 3. 주체적 요인

주체적 요인은 한국 유학을 통해 중국 여성 유학생들이 자기 정체성과 전문성을 재구성해 나가는 내면의 동기를 설명한다. 자아확장이론(Aron & Aron, 1986)은 개인이 낯선 환경에서 새로운 경험을 통해 자신의 능력과 정체성을 확장하고자 하는 심리적 동기를 강조한 것으로, 이는 예술 전공 중국 여성들의 한국 유학 결정 동기와 밀접하게 연관된다. Mo & Ko(2024)의 질적 연구에 따르면, 예술치료를 전공한 중국 여성 유학생들은 단순한 학위 취득을 넘어 예술가, 치료사, 교수자로서의 복합적인 정체성을 형성하려는 열망을 가지고 한국 유학을 선택하는 내면의 동기가 확인되었다. Chen & Lee(2024) 또한 여성 유학생들이 전통적인 젠더 규범에서 벗어나 자기결정성과 문화적 주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유

학을 선택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예술 전공자들은 외부 세계와의 상호작용, 정서적 자극, 다문화적 경험을 창작의 자원으로 삼는 경향이 강하며, 이에 따라 유학은 이들에게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 강화된 정체성 형성의 기회이자 도약대가 될 수 있다. 이를 자아확장이론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이찬봉(2021), Chen & Lee(2024), Lan(2021), Mo & Ko(2024), 의 연구에서도 확인되는 바와 같이, 예술 전공 중국 여성 유학생들의 한국 유학 선택에는 타문화 경험과 학문적 도전을 통해 자아의 복합적 성장을 기하고,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려는 개인의 동기가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곧 중국여성 유학생들이 단지 가족의 기대나 사회적 요구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추구하는 진로, 전문성, 삶의 방향성에 따라 유학을 전략적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주체성은 자아확장이론의 핵심 개념인 새로운 경험을 통한 자아확장(self-expansion through novel experiences)과 일치한다. 이들에게 한국 유학이란 단지 학위 자체를 획득할 장소적 선택이 아니라, 더 나은 자신으로 나아가기 위한 도전적 여정이자 자아 정체성을 재구성할 기회로서 의미를 갖는다. 이는 특히 예술 전공 유학생들에게 있어 예술가로서의 존재와 학자적 정체성을 동시에 탐색하고 조율하는 중대한 삶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유사한 맥락에서, 글로벌 문화 환경 속에서 유학생들이 더욱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자아를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주체성은 외국 유학이라는 단일 사건에 국한되지 않고, 유학 이후의 진로 설계와 문화적 정체성 구성에도 장기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즉, 예술 전공 중국 여성 유학생에게 한국 유학은 단순한 학업 공간의 이동이나 외형적 목표 달성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 존재를 재정의하고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인 동시에 정체성 형성의 기회이자 도전의 시간이라 할 수 있다.

## V. 논의

본 연구결과에 따라 중국 여성 예술 전공 박사 유학생들이 한국 유학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사회문화적 맥락, 제도적 유인, 그리고 주체적 동기가 복합적으로 작용됨을 확인하였다. 특히 예술 계열 유학생의 경우, 한국의 실기 기반 박사 교육 시스템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는 중국 내 대안 부족에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Mo & Ko(2024), 소이란(2022) 등의 연구는 이러한 제도적 조건이 예술계 여성 유학생의 학문적 욕구와 정체성 형성 욕구를 충족시키는 요인임을 시사한다. 또한 자아확장이론은 이들이 유학을 통해 단순한 경력 축적을 넘어 문화적 주체로서의 삶을 재구성하고자 하는 내재된 동기를 설명하고 있다.

중국 여성 예술 전공 박사 유학생들의 한국 유학 결정은 단순한 개인의 선택을 넘어 사회적, 제도적, 심리적 맥락이 중첩된 복합적 현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예술계 박사 교육에 있어 한국의 제도적 장점은 중국의 중산층 여성 유학생들에게 현실적이고 전략적인 선택지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유학 선택은 단편적인 교육 기회의 탐색을 넘어, 여성으로서의 사회적 위치를 재조정하고 예술가이자 연구자로서의 정체성을 획득하려는 실존적 시도이기도 하다. 특히 예술 전공 유학생들은 한국 유학을 통해 실기와 학문, 현장 경험을 융합하며 전문성과 국제적 감각을 동시에 확장하려는 경향을 보이며, 이는 기존의 여성성과 예술성에 대한 고정된 관념을 넘어서는 창조적 정체성 재구성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자아

확장이론의 핵심 개념인 새로운 자원, 시야, 능력의 획득과 연결된 것으로, 한국 유학은 중국 여성 유학생들에게 자기효능감, 자율성, 문화 간 적응능력 등을 증진시키는 기회로 작용한다. 더불어 사회역할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중국 사회에서 전통적으로 제한된 여성의 역할에 대한 인식은 한국 유학이라는 탈경제적 선택을 통해 재구성되고 확장된다. 특히 가족과 사회의 기대를 넘어선 학문적 성취와 예술적 창의성 추구는 여성들이 사회 내에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는 전환점이 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 첫째, 분석에 포함된 문헌 수가 제한적이며, 일부 문헌은 예술 전공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기보다는 포괄적인 국제 유학생 경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 이유는 해당 연구주제를 체계적 문헌고찰이나 한 전공에 제한해서 진행하기에는 연구물이 부족해서 연구질문에 대한 대답을 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둘째, 문헌 기반 분석은 당사자의 실제 경험을 생생하게 전달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후 정량적/정성적 경험 데이터를 포함한 심층 연구가 요구된다. 셋째, 예술 전공 여성 유학생의 세부 전공(음악, 무용, 미술, 디자인 등)에 따라 유학 결정 요인 및 전략이 다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이를 구체적으로 분화하여 분석하지 못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면담 및 사례 연구 등을 통해 이론적 분석을 보완하고, 유학 이후의 학문적 진로 및 사회적 통합 과정까지 포괄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유학 전·중·후 시기별로 경험의 변화를 추적할 수 있는 종단적 질적 연구, 전공별·지역별 차이를 반영한 비교연구 등이 본 주제에 대한 더욱 풍부하고 실증적인 통찰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양적 설문조사를 통해 보다 일반화 가능한 결과를 확보함으로써, 정책 설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자료 구축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향후 이 주제에 대한 질적 사례 연구 및 양적 설문연구의 토대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이 문헌연구를 기반으로 유학이라는 인생의 중요한 결정과 경험이 귀국 후 그들의 삶에 어떠한 기여를 하고 있는지 2차 후속연구를 진행 중이다. 본 연구가 예술 관련 중국 여성들의 한국 박사유학 결정을 단순한 경력 축적이나 사회적 인정, 학문적 이동에 국한하지 않고, 삶의 철학과 주체성 형성 과정의 맥락을 이해하는 기본 자료로 활용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

## ■ 참고문헌

- Aron, A., & Aron, E. N(1986). *Love and the expansion of self: Understanding attraction and satisfaction*. Hemisphere Publishing Corp.
- Eagly, A. H., & Wood, W(2012). *Social role theory*. In P. A. M. Van Lange, A. W. Kruglanski, & E. T. Higgins (Eds.), *Handbook of Theories of Social Psychology* (Vol. 2, pp. 458-476). SAGE Publications. <<https://doi.org/10.4135/9781446249222.n49>>
- 강유린, 고장완(2019). 중국인 유학생의 한국 유학 결정요인 분석: 한국의 유인요인을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25(5), 1075-1097. <<https://doi.org/10.24159/joec.2019.25.5.1075>>
- 고정윤, 김유정(2020). 중국 유학생의 우울과 문화적응스트레스에 따른 빗속의 사람(Person-In-The-Rain)그림검사 반응특성 연구. *한국예술치료학회지*, 20(1), 101-123. <<http://doi.org/10.18253/kart.2020.20.1.05>>
- 김경숙(2014). *한국인 해외유학생의 문화진입스트레스와 학업스트레스가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한국상담대학교 대학원.
- 김소창(2010). *재한 중국유학생의 인지적 종결욕구와 자아존중감이 대학생활적응과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 김시용, 이진우(2012). 중국학생의 한국유학 결정요인에 관한 분석 -중국 산둥, 광둥, 연변지역을 중심으로-. *중국학논총*, 37, 325-345.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723456&utm\\_source=chatgpt.com](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723456&utm_source=chatgpt.com)>
- 김후조(2011). *중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자아탄력성 및 낙관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대학원.
- 리첸첸, 오인수, 이수경(2016). 중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 유형과 문화적응 스트레스, 기본심리욕구 및 대학생활 적응의 관계. *아시아교육연구*, 17(1), 101-120. <<http://doi.org/10.15753/aje.2016.03.17.1.101>>
- 박은정(2018). 국내 대학 중국인 유학생의 학업적응과 진로결정 요인. *교육문화연구*, 24(2), 145-169. <<https://doi.org/10.24159/joec.2018.24.2.145>>
- 소이란(2022). 수도권 대학 예체능 계열 박사 과정 재한 중국인 유학생 교육 현황 및 개선 방안 연구. *문화와 예술연구*, 20, 501-529. <<https://doi.org/10.35413/culart.2022.20.20.016>>
- 이지영(2024). 아시아 유학생들의 한국 유학 결정 과정: 부산 B대학 석사과정 학생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융합과학회지*, 13(2), 155-170. <<https://doi.org/10.24826/KSCS.13.2.10>>
- 이주영, 양갑용(2014). 중국 유학생의 한국 유학 선택 행위 연구: 근거이론에 기초하여. *중국학연구*, 69(0), 355-387. <<https://scholarx.skku.edu/handle/2021.sw.skku/54613?mode=full>>
- 이찬봉(2021). *중국 음악전공 학생의 한국 유학 동기가 진로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세한대학교 대학원.
- 왕자목(2023). 중국 현대무용의 시기별 작품과 정치적 기능에 관한 연구: 작품 「의용군 행진곡」,

- 「희망」, 「구가」를 중심으로. *무용예술학연구*, 93(4), 65-80. <<https://doi.org/10.16877/kjds.93.4.202312.65>>
- 이문준, 김승일(2022). 무용전공 중국대학생의 언어폭력경험과 사회불안 관계에서 심리적 요인의 매개 및 조절효과 분석: 도피이론의 관점을 중심으로. *무용예술학연구*, 87(3), 81-100. <<https://doi.org/10.16877/kjds.87.3.202209.81>>
- 위산산(2023). 중국 민국시기(1912-1949) 사교춤에서 나타난 여성해방연구. *무용예술학연구*, 90(1), 105-122. <<https://doi.org/10.16877/kjds.90.1.202303.105>>
- 장옥효(2024). 중국 유학생의 한국 유학 결정 동기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대학원.
- 정옥희(2025). A Preliminary Research on the Increase of Chinese Students in Dance Departments in South Korea, *대한무용학회 논문집*, 73(3), 193-223.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007403>>
- 조용비, 이동혁(2018). 중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자아방어기제의 조절역할. *상담학연구*, 19(3), 141-158. <<https://doi.org/10.15703/kjc.19.3.201806.141>>
- 진항, 이지영(2024). 중국인 박사과정 유학생의 한국 유학 경험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교육과 문화*, 6(2), 176-199. <<https://doi.org/10.23009/JEC.2024.6.2.176>>
- 황경아, 홍지아(2018). 재한 중국 유학생의 유학동기와 문화자본으로서의 취득학위의 가치 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 91, 319-357. <<https://doi.org/10.46407/kjci.2018.10.91.319>>
- 책리하, 박창언, 천단(2018). 한국어 실력이 왕초보인 박사과정 유학생의 학업적응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내러티브와 교육연구*, 6(3), 157~175. <<https://doi.org/10.25051/jner060307>>
- Luo, J. J.(2022). 재한 중국유학생의 유학동기와 문화적응에 대한 질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교육 대학원.
- Tian, X.(2020). 코로나19 원격 교육에서 유학생 학업정서가 학습몰입도, 학교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유학생 문화적응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 Bao, L.(2022). Connecting the past and the future: Academic geographical (im)mobility of Chinese women academics throughout doctoral education. *Frontiers in Psychology*, 13, 987060. <<https://doi.org/10.3389/fpsyg.2022.987060>>
- Lan, S.(2021). Finding a Chulu (Way Out): Rural-origin Chinese students studying abroad in South Korea. *Pacific Affairs*, 94(4), 661-684. <<https://doi.org/10.5509/2021944661>>
- Lee, S. W.(2017). Circulating East to East: Understanding the push-pull factors of Chinese students studying in Korea. *Journal of Studies in International Education*, 21(2), 170-190. <<https://doi.org/10.1177/1028315317697540>>
- Mo, Y. N., & Ko, K. S.(2024). Motivation and experiences of studying creative arts therapy among Chinese doctoral students in South Korea.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ents*, 14(4), 1029-1048. <<https://doi.org/10.32674/jis.v14i4.6814>>
- Yang, J.(2022). Chinese contemporary art teachers' professional development in the 20th and 21st

- centuries within the multicultural framework. *Heritage Science*, *10*(1), 56. <<https://doi.org/10.1186/s40494-022-00692-8>>
- Yin, Y., & Ko, K. S.(2023). The effect of group art therapy on acculturative and academic stress of Chinese graduate students in South Korea. *Frontiers in Psychology*, *14*, 1179778. <https://doi.org/10.3389/fpsyg.2023.1179778>
- Zhang, S., & Tang, X.(2021). Cultural capital as class strength and gendered educational choices of Chinese female students in the United Kingdom. *Frontiers in Psychology*, *11*, 584360. <<https://doi.org/10.3389/fpsyg.2020.584360>>
- 법무부(2024).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23. [월간보고서]. <<https://www.immigration.go.kr>, 2025. 01. 30>.
- 한국교육개발원(2023). 교육기본통계: 외국인 대학원 재학생 현황. [연구보고서]. <<https://kedi.re.kr>, 2025. 01. 30>.
- 한국교육개발원(2025). 국내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 및 연수생 현황. [연구보고서]. <<https://www.kedi.re.kr/khome/main/search/searchLst.do?q=%EC%A4%91%EA%B5%AD%EC%97%AC%EC%84%B1+%EB%B0%95%EC%82%2025.05.10>>.

논문투고일 2025. 05. 13.  
심사일 2025. 05. 21.  
심사완료일 2025. 06. 23.

## Determinants of Chinese Women's Decisions to Pursue Doctoral Studies in the Arts in South Korea

– A Literature Review –

**Ko, Kyung Soon**

Assistant Professor, Dept. of Creative Arts Psychotherapy, Jeonju University

In recent years, South Korea has become an increasingly attractive destination for international doctoral students, particularly among Chinese women in the arts. This literature-based study investigates the structural, cultural, and personal factors influencing Chinese female doctoral students' decisions to pursue arts-related studies in South Korea. Drawing upon Social Role Theory and Self-Expansion Theory, the study analyzes 14 key academic studies to explore how gender norms, institutional structures, and individual aspirations interact in shaping these students' decisions to study abroad. The findings highlight the unique appeal of South Korea's practice-oriented doctoral programs in the arts, the institutional support systems such as scholarships and flexible admissions, and the cultural proximity shared between China and Korea. Furthermore, the study emphasizes how studying abroad serves not only as an academic endeavor but also as a strategic and existential path for these women to reconstruct their identities beyond the constraints of traditional gender expectations. By illuminating the interplay of external constraints and internal motivations,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understanding of transnational academic mobility within gendered and cultural contexts.

**Keywords:** Chinese female doctoral students (중국 여성 박사생), Study abroad decision-making(유학 결정), Social Role Theory(사회역할이론), Self-Expansion Theory(자아확장이론); Arts related majors(예술 관련 전공)